

## 지역양돈의 든든한 울타리 정·읍·지·부



▲좌로부터 정상길 재무, 이갑순씨, 정진섭 지부장, 양인권 총무

취재 : 조 진 현

모든 축산업이 다 힘든 시기라고 사람들이 한 입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겨울철 소비감소와 완전수입개방을 맞아 양돈업 또한 쉽지 않은 길을 걷고 있으며, 협회 각 지부들 또한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번 지부탐방의 길은 다른 지부와 마찬가지로 많은 어려움을 받지만, 지부의 규모가 어느 정도 크고, 계속되어진 지부사업으로 뿌리가 굵고 튼튼해 흔들리지 않고 지역 양돈인들의 좋은 울타리가 되고 있는 정읍지부를 찾아가 보았다.

### 회원관리에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아

정읍지부는 1988년 12월 6일에 정주·정읍지부로 창립되어 초대 김영범 지부장을 비롯 현 5대 정진섭 지부장에 이어지고 있으며, 시·도위원을 역임하는 등 현 정진섭 지부장까지 계속해서 유능한 지부장들이 지부를 이끌어와 지역사회에서 양돈인의 힘을 배가시키고 있었다.

현재 임원으로서는 지부장 1명, 부지부장 1명, 총무 1명, 감사 2명, 운영위원 14명 및 재무 1명으로써 20명이 지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재무란 직위가 있어 총무의 많은 일을 분담하며,

지부의 재정을 관리하는 등 활동이 많았다.

지부에서는 명절때마다 전 회원에게 모두 선물을 보내고, 회원이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느낄 시 정도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항상 지원을 해 주고 있으며, 길·홍사에도 빠지지 않고 관심을 가져주는 등 회원관리에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아 자연 회원의 유대가 좋아짐은 물론 협회로서의 위치와 구심체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해 나가고 있었다.

### 일찍부터 해온 사료공동구매 사업으로 탄탄한 재정이 돋보여

정읍은 크지않고 소담한 도시로써 양돈을 하기에 좋은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는 듯 보였고, 고속도로와 인접해 있어 출하의 편리함이 눈에 띄는 곳이었다.

전북은 전국에서도 양돈이 성행하는 지역중 하나로써 정읍에서는 200여 양돈농가가 1가구당 평균 1,000두정도 규모로 전업화된 양돈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70% 이상이 수출돈으로 규격돈 생산을 하고 있다. 또한, 돈사의 경우 대개 톱밥 돈사를 사용하고 있으며, 80% 정도의 농가가 순

수 자가노동력을 이용하여 양돈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

정읍지부는 양돈농가 80여명을 모아 사료를 공동구입해 농가에게 싼 가격에 사료를 공급해 주면서 약간의 수수료를 받아 지부를 운영하고, 남은 여분의 자금을 협회재정으로 모으고 있었다. 일찍부터

몇 대 지부장에 걸쳐해 온 이 사료공동구매 사업을 통해 지부는 탄탄한 재정을 가지고 회원의 결속을 다지고 지역에서 양돈인의 위치를 높이는 한편, 많은 사업들을 운영·계획해 나가고 있었다.

### 공동방역사업 추진 계획

또한, 공동방역사업을 이미 추진중에 있으며, 얼마전 규격돈을 제외한 폐돈의 최소 하한가를 정한 공동출하사업을 실시했으나 폐돈의 수량이 적고 반응이 생각에 못미쳐 지금은 그만 둔 상태이며, 현재는 흥성·천안지역처럼 자가배합사료(전문사료) 사업을 협회를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금년 12월중 양돈인들과 함께 견학을 계획하고 있는 등 기술습득 및 홍보활동에 열중하고 있다.

지부장은 전국에 이미 5개(경기3, 충남2)의 자가배합사료가 있다고 말하고, 이 사업은 사료 공동구매 사업과 함께 회원농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으며, 중



▲여름철 회원농가 가족들과 함께 가진 즐거운 야유회

앙회나 관계기관이 기술적인 뒷받침을 해줄 것을 바란다고 이야기했다.

### 생산비 절감 위해 자가배합사료 공장도 운영할 계획

또한 시당국과의 관계 개선에 상당한 노력을 들인 보람으로 다소 나아지기는 했으나, 양돈농가들이 분노처리에 비용이 너무 들어가는 등 어려움이 많다고 하소연 하면서 스위스 같은 외국 견학의 예를 들어 보이면서 '아무런 준비없이 양돈인들을 몰가에 데려다 놓고 억지로 건너라 하는 것' 아니냐며 정부에서 축산폐수 단속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처리시설을 먼저 만들어 줄 것을 요구했다.

덧붙여, 지부는 계속해서 회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언제든지 양돈인들의 가입을 환영하고 있으며, '호남영농조합법인'과 '양돈인의 집' 등 적지않은 양돈인 모임이 있지만 협회의 영향력을 높히는데 현 지부장은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었다. **養豚**